불교학연구(Korea Journal of Buddhist Studies)
제62호(2020.3) pp. 131~159 10.21482/jbs.62..20203.131

『十門和諍論』<공유화쟁문>에 나타난 화쟁논법의 특성: 이제·삼성·불가언설과 관련한 비유비무 중도관을 중심으로

김태수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객원연구원
tskim1003@snu.ac.kr

I. 머리말
II. 『十門和諍論』<공유화쟁문>에 나타난 화쟁논법과 비유비무 중도관의 특성
III. 원효 화쟁론의 의미론적 검토
IV. 결론: 원효 화쟁논법에 나타난 비유비무 중도관의 함의와 특성

요약문

이 논문은 『十門和諍論』<공유화쟁문(空有和諍門)>에 나타난 원효 화쟁논법의 특성을 이제(二諦)·삼성(三性)·불가설(不可說) 논의와 관련된 비유비무(非有非無) 중도관(中道觀)을 중심으로 바라본 연구이다. 원효는 <공유화쟁문>에서 허공(虛空)의 비유를 통해 일미(一味)와 같은 화쟁의 근원을 시사한다. 나아가 공성(空性)과 연기(緣起)에 의거해 이제와 삼성의 관점을 상호 연계시킴으로써 대립된 입장이 본체론적 모순 없이 모두 긍정됨을 밝힌다. 이때 모든 언설은 자성이 없는 가립(prajñapti)이나 희론(prapañca)으로 간주된다.

이러한 화쟁론의 특성은 주장을 관철하기 위한 논법과 달리, 일미, 불가설 실상과 같은 통찰의 견지에서 모순적 주장이 모두 성립함을 드러내는 화회방식으로 볼 수 있다. 공성=연기=중도 제일의제에 의거한 화쟁의 바탕이자 불가설로서의 일미는 중도실상

www.kci.go.kr

을 나타낸다. 이는 이제·삼성과 상의 상관적으로 연계되어 공통의 의미를 도출하는 허공과 같은 바탕으로 기술된다. 또한 세제인 의타기성과 제일의제인 원성실성 및 유제(有諦)와 무제(無諦) 간의 불일불이 구도가 부각된다. 나아가 제4구의 부정과 제3구의 긍정이 양방향으로 순환되는 상의 상관적 논리를 드러낸다.

이렇듯 불가설 중도에 기반한 진·속 간의 역동적 상호연계 속에서 모든 쟁론은 일미로 화회된다. 이는 유(有)·무(無)·역유역무(亦有亦無)·비유비무뿐만 아니라 중(中)에도 집착하지 않는 방편적 화용론이다. 따라서 <공유화쟁문>의 이제 중도론은 언어나 사유로 상정된 모든 종류의 집착을 타파하는 연기적 사유로 볼 수 있다. 화쟁 또한 공과 유를 일의성(一義性)으로 회귀시키며 새로운 의미를 생성하는 비일비이론에 의거한 의미의 순환이론이다.

주제어
십문화쟁론, 공유화쟁문, 화쟁논법, 비유비무, 중도관, 이제, 삼성, 일미, 공성

I. 머리말

『十門和諍論』은 수많은 불교 교리들을 회통하려 한 원효(元曉, 617-686)의 화쟁론을 본격적으로 다루는 주요 저작이다. 특히 공(空)과 유(有), 중관과 유식, 공성과 불성, 무성(無性)과 유성(有性) 등 주요 문제를 대립적으로 파악한 것이 아니라 비유비무(非有非無)·불일불이(不一不異) 중도 형태로 회통하는 원효 화쟁론의 특성을 잘 보여주는 대표 저작 가운데 하나이다.

『十門和諍論』에 관해서는 박태원, 최유진, 고영섭, 김영일, 김성철 등의 선행연구가 있다. 박태원은 『십문화쟁론』의 십문을 '관점을 성립시키는 조건들의 열 가지 연기적 인과계열로써 화쟁하는 이론', 곧 화쟁 방식으로 보면서, '공/유 화쟁'에 대한 해석학적 번역과 논지 분석을 통해 쟁론과 화쟁의 분기점으로 언어와 마음의 문제에 주목한다. 즉, "공과 유라는 언어를 이질적 본질을 지닌 실체라고 보는 마음을 잘못된 집착의 토대"로 보고, "공유 의미에 대한 오해를 치유하는 화쟁 논의를 통해 실체 없이 존재하는 세계와 하나로 만나는 원효의

www.kci.go.kr

막힘없는 삶의 지평”을 중시한다.[1] 고영섭은『십문화쟁론』분석에서 진리, 도리와 일리를 근거로 문(門)과 론(論)을 시설하여 공집(空執)과 유집(有執), 곧, ‘공’(공성)과 ‘유’(가유)에 대한 공통점과 차이점[同異]을 일심과 일미로 종합하는 통합 논리에 초점을 둔다.[2] 최유진은 원효 전 저작에 나타난 화쟁론을 검토하면서 비인비과(非因非果)의 일심에 기반을 둔 회통을 강조한다.[3] 김영일은 최유진의 화쟁 방법을 활용하여 화쟁 사례의 대표적 유형을 분석하고 회통의 논거와 논증을 도리, 경론, 경론의 의미 확정으로 분류해 검토한다.[4]『십문화쟁론』「공유화쟁문」에 대해서는 잔간의 “앞부분에서 제설이 옳다고 회통하고 뒷부분에서 부족한 내용을 보충 설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에 주장과 논란 내용은 없고 회통 부분만 잔존”하는 것으로 추정한다.[5]

화쟁의 논리구도와 관련해서 김성철은 원효 논리의 타당성을 밝히면서도 “사구분별에 근거하여 추론식에 사용된 이유명제[因]를 충족시키는 사례가 동품과 이품에 존재하는지[有], 존재하지 않는지[無], 부분적으로 존재하는지[亦有亦無] 여부를 가려 그 추론식의 타당성을 검증하는 진나(陳那, Dignāga, ca.400-480)의 신인명과 달리,『無量壽經宗要』에서 ’사구분별을 넘어선 믿음’을 ‘화쟁 영역’으로 본 점을 원효의 독특성으로 평가한다.[6]『십문화쟁론』에 관해서는 “인명학과 직접적 관계가 없음에도 인명학이 적극적으로 활용된 저술”로 보고 “인명학의 오류론이 논의의 도구로 도입”된 점에 주목한다. 특히 “추론식을 통해 논의를 전개하며, 부정과(不定過), 자어상위(自語相違), 결정상위

1) 박태원,「『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공(空)/유(有) 화쟁’의 해석학적 번역과 논지 분석」,『불교학연구』34,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3, pp.147-193.

2) 고영섭,「분황(芬皇) 원효(元曉)의 화쟁(和諍) 회통(會通) 인식:『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중심으로」,『불교학보』81(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7), pp.60-87.

3) 최유진,「元曉의 佛性에 대한 견해-佛性의 體와 有無의 문제를 중심으로」,『대동철학』20(서울: 대동철학회, 2003), pp.161-174; 김태수,「『十門和諍論』에 나타난 ‘불성 유·무(佛性有無)’에 대한 논의 연구」,『철학논총』49(대구: 새한철학회, 2008), pp.439-462 참조.

4) 金永日,「元曉의 和諍論法硏究: 和諍의 實例를 中心으로」, 박사학위 논문(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pp.1-70 참조.

5) 김영일,「元曉의 空有和諍論」,『한국불교학』64(서울: 한국불교학회, 2012), pp.219~241.

6) 김성철,「원효의 논리사상」,『보조사상』26(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6), pp.284-313.

www.kci.go.kr

(決定相違) 등 현장 인명학에서만 볼 수 있는 술어들이 등장"함을 밝힌다.[7] 단, 이와 관련된 『십문화쟁론』에 대한 독립적 분석은 없다.

본 연구는 이러한 선학들의 연구를 기초로 한다. 다만 선행연구에서는 <공유화쟁문>에 나타난 화쟁논법의 논리적 특성을 원효가 사용한 사구논리, 특히 그 가운데 제4구(비유비무)와 제3구(역유역무)의 활용이나 인명학을 통해 반론자와 원효 논법을 대비한 분석이 없다는 점에 주목했다. 나아가 불교 논리학적 특성을 이제·삼성·중도 및 공성과 연계 지워 규명한 연구가 거의 없다는 점에서 본 논문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필자가 보기에 원효 화쟁논법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 가운데 하나는 7세기라는 사상사적 격동기 속에서 유입된 다양한 이론과 수행론을 획일적으로 체계화한 것이 아니라, 신·구인명을 포괄하는 불교 논리학의 도구와 이제·삼성 등의 범주를 결합하여 다양한 논의 맥락을 규명·회통 했다는 점이다. 나아가 원효는 각 논의의 의미 차이와 공통성을 승의와 세속을 포괄하는 인식론 및 수행론 측면에서 화회시켰다. 이를 통해 양극단을 벗어날 때 드러나는 중도를 공과 유, 공성과 불성, 진과 속 간의 불일불이론으로 전개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원효가 활용한 사구논리, 특히 제4구와 제3구의 부정·긍정 활용 방식 및 이제·삼성설에 불교 논리학을 결합하는 복합 구도에 주목하면서 『十門和諍論』 <공유화쟁문>의 공·유화쟁론에 나타난 논리적, 의미론적 특성을 검토해 보자.

II. 『十門和諍論』 <공유화쟁문>에 나타난 화쟁논법과 비유비무 중도관의 특성

현존하는 『十門和諍論』 내용에서는 공과 유, 불성 유무에 관한 화쟁 논의를 통해 원효가 지향하는 중도실상이 잘 나타난다. 방법론으로는 승의와 세속 간

7) 앞의 논문, pp.286-288.

www.kci.go.kr

의 진속 이제론 및 유식 삼성설이 다수 활용된다. 특히 <공유화쟁문> 부분은 원효 자신이 생각하는 리언(離言)의 진실과 공성 간의 관계가 잘 나타나는 만큼 그 내용을 통해 원효의 비유비무 중도관에 접근해 보도록 하자.

1. <공유화쟁문>에 나타난 비유비무 중도 논법의 특성

<공유화쟁문>의 현존 부분은 다음 구절로 시작한다.

> (전략)[8] 有; 여기서 주장하는바 유(有)는 공(空)과 다르지 않다. 그러므로 전과 같다 할지라도[9] 증익이 아니다. 가설적 차원에서 유를 인정한다 해도 궁극적 차원에서 유집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 유는 유에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비록 뒤와 같더라도 손감이 아니다. 앞에서 말한 '실제로 존재한다'라는 것은 '공과 다르지 않은 유'이고, 뒤에 말한 '유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은 '공과 다른 유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이다. 따라서 모두 인정되어 서로 어긋나지 않는다.[10]

이상의 핵심 주장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여기서 주장되는바 유는 공과 다르지 않으므로 앞에서 '유라고 인정한 것'이라 하여도 증익(增益, samāropa)[11]이 아니다. 가설(언표, prajñapti)적 차원에서 유를 인정해도 승의에서는 유집에 빠져 유에 떨어지는[12] 것이 아니다. 따라서 비록 뒤에서 '유에 떨어지지 않는다(不墮有)'라고 해도 손감(損減, apavāda)[13]이 아니다. 앞의 '실제로 존재한다'[14]란 '공과 다르지

8) 전략된 부분에는 '實是有'나 '不墮有'에 대한 논의가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9) '유라고 인정한 것이라 하여도'의 의미이다.

10)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8上), "有 此所許有 不異於空 故雖如前而非增益. 假許是有 實非墮有. 此所許有 非不墮有. 故雖如後而非損減. 前說實是有者 是不異空之有 後說不墮有者 不墮異空之有. 是故俱許而不相違."; 김태수,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서울대학교대학원, 2018), p.237 참조.

11) '없는 것을 있다고 한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공과 별도의 실체적 유를 상정할 때 증익이라 한다.

12) 본래 '墮'는 부정적 표현인데 여기서는 '不墮有'보다 '不無有(있는 것이 아니다)'로 표현하는 것이 한층 그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않은 유'이고, 뒤의 '유에 떨어지지 않는다'[15]란 '공과 다른 유에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모두 인정되어(俱許) 불상위(不相違, avirodha)이다."

『중변분별론』의 기술을 연상시키는 이러한 중도론은 유식 논사의 논법처럼 보인다. 하지만 논의 전개 방식이나 화쟁논법의 특징적 표지인 '불상위' 등을 감안할 때 이 내용은 원효의 회통 부분으로 볼 수 있다. '불상위'란 불교 논리학에서 대론자 간, 또는 한 논사의 두 가지 대립 되는 주장이 모순되지 않는다는 의미이다. 예를 들어 한 논사가 'P는 A이다', 'C이기 때문이다'라고 하고, 또 'P1은 B이다', 'D이기 때문이다'라고 할 경우, C가 P1와 어긋나고, D가 P과 어긋나므로 상위결정(相違決定, viruddha-avyabhicārin)임을 나타내는 논쟁의 논법과 달리, '관점에 따라 차이를 두고 보면, 양측이 모순되지 않기에 결정상위가 성립하지 않음을 보임으로써 화쟁을 도출하는 대표적 표식이다.

위의 논법에서 또 한 가지 특이한 사실은 용수(Nāgārjuna, ca.150-250)와 달리, 부정이 곧 긍정으로 치환된다는 점이다. 부정 표현을 쓰더라도 실제로는 긍정을 위한 부정 표현으로 볼 수 있다. 이 역시 원효의 특징적 논지 전개 방식이다. 원효는 상대적 개념을 서로 연계시켜 어느 것도 인정하지 않는 것(4구) 같지만 실제로는 양자를 모두 인정하는(3구) 독특한 방식을 즐겨 활용하는데, 위 논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용수의 프라상가 논법에서 사구부정은 문장 전체의 부정으로 끝나는 술어부정(pratiṣedha)이지 부정된 명사 이외의 것을 긍정할 수 있는 명사부정(paryudāsa)이 아니다. 이에 비해 원효는 부정(특히, 4구)을 긍정(특히, 3구: 俱許)으로 전환하는 명사부정 방식을 선호

13) '있는 것을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의미이다.

14) '實是有'는 '不墮有'에 대비되어 사용된다. 여기서 '是'는 대명사가 아니므로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글자 수와 강조를 위해 쓰인 것으로 보인다. '卽佛'이라고 해도 되지만 '卽是佛'이라고 쓰는 방식과 흡사하다.

15) 이 문제와 관련된 원효의 산실 저술로는 『淸辨護法空有淨論』 1권, 『廣百論宗要』 1권, 『廣百論撮要』 1권, 『廣百論旨歸』 1권, 『三論宗要』 1권, 『中觀論宗要』 1권, 『掌珍論宗要』 1권, 『掌珍論料簡』 1권, 『成喩識論宗要』 1권 등이 전해진다.

www.kci.go.kr

한다. 따라서 원효의 부정은 부정 자체로만 끝나지 않고 다양한 함의를 지니게 된다.

여기서 원효는 '공과 다르지 않은 유(不異空之有)'를 '공과 다른 유(異空之有)'와 대비시킨다. 이때 '공과 다르지 않은 유(不異空之有)'는 앞 문장의 '공과 다르지 않음(不異於空)'에 대응하고, '공과 다른 유(異空之有)'는 '공과 다르지 않음(不異於空)'에 상대한다. 그 후 유는 공과 다르지 않은 유이기에 '모두 인정된다(俱許)'는 '역유역무(亦有亦無)' 구로 상반된 두 주장을 회통 시킨다. A라는 주장과 -A라는 주장이 모두 인정되는 '구허'란 상이한 관점이나 상의 상관적 관계 등으로 인해 모순(相違) 또는 상반(相反)되지 않는다는 함의를 내포한다. 나아가 상호의존적으로 연관된 '관점의 동거'를 통해 부정과 긍정, '비유비무'(4구)와 '역유역무'(3구)가 상호침투, 전화되는 논법을 보여준다. 관점과 전제를 부가할 경우, 단순부정(2구), 양자부정(4구), 단순긍정(1구) 및 양자 긍정(3구) 형태의 각 주장이 모두 인정된다는 회통 논법이다. 이처럼 '공과 다르지 않은 유'이기에 '유에 떨어지지 않는다(不墮有)'라는 독특한 논법은 '유'이지만 세속의 관점에서 보면 '세속유'이므로 공과 대립된 '실유'가 아니라는 논거를 전제로 한다. 혹은 이제로써 관점을 나누어 유와 공을 서로 전환하기도 한다.

그럼 이러한 특징에 주목하면서 <공유화쟁문> 내용의 의미와 그 논지 전개의 타당성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이로써 원효 화쟁논법의 특성을 한층 구체적으로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2. <공유화쟁문> 내용의 의미와 논리적 타당성

공·유와 같은 상대적 개념의 상호연계 및 전화는 원효의 여타 저작에도 많이 나타난다. 이와 관련하여 『大慧度經宗要』에서 이제·삼성을 활용하여 실상반야의 상을 밝히는 주장 가운데 세 번째 논사의 논점을 보자.

> '의타기성은 유라고도, 공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세속제로 보면 유고, 승의제로 보면 공이다. 공이 곧 진여이되 진여는 공이 아니다. 이러한 것을 모

www.kci.go.kr

든 법의 실상이라고 한다.' 이하의 글에는 '세속법이기에 업보를 설했고, 제일의 안에는 업도 없고 보도 없다.'[16]

이상의 논지는 의타기가 가유로서뿐만 아니라 실제로 존재한다고 주장하는 호법(Dharmapāla, 護法, ca.530-561)의 입장으로 추정된다. 호법은 의타기를 "가(假)와 실(實)로 나누고, 적집한 가와 실유를 모두 인정한다. 이와 관련하여 『成唯識論』에는 "심·심소·색 등은 인연에 따라 생하기에 실유이며, … 만약 실법이 없으면 가법도 없다."[17]라고 기술되어 있다.[18]

호법의 의타기 실유설에 대해 『大慧度經宗要』에 두 번째 논사로 나오는 청변(Baviveka, 淸辨, 490-570)과 같은 중관 입장[19]에서는 이러한 주장을 '공과 다른 유[異空之有]'로 비판할 수 있다. 그렇지만 원효가 볼 때, 호법이 말하는 실유 또한 인연생(因緣生)을 의미한다. 따라서 의타기가 '가유로는 유이나, 실유로는 공이다'라는 회통이 가능해진다.[20] 원효는 이처럼 '실법'과 '실유'의 함의를 드러내는 회통을 통해 유라고 해도 '불타유(不墮有)'라는 방식으로 두 입장을 화쟁하는 독특한 논법을 전개한다. 이는 언설이 가설에 불과하다는 방편적 언어관[21]에 의거, 말 자체가 아니라 말이 드러내고자 하는 의미를 고려해서 이해

---

16) 『大慧度經宗要』(『韓佛全』1, pp.480下-481上), "或有說者 依他起性 亦有亦空. 世俗故有 勝義故空. 空卽眞如 眞如不空 如是名爲 諸法實相. 如下文云 世俗法故 說有業報. 第一義中 無業無報."; 김태수, 「제법실상(諸法實相)에 대한 원효의 화쟁방식」, 『동아시아불교문화』35(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pp.5-6 참조.

17) 『成唯識論』(『大正藏』31, p.46下), "依他起性有實有假 集相續分位性故 說為假有. 心心所色從緣生故 說為實有. 若無實法 假法亦無." 참고.

18) 김태수,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p.112 참고.

19) 『大慧度經宗要』(『韓佛全』1, pp.480下-481上), "或有說者 依他性空 眞如亦空 如是乃爲諸法實相. 如下文言 色無所有不可得 受想行識無所有不可得乃至如法性實際 無所有不可得. 又言 諸法實相云何有. 諸法無所有 如是有是事不知 名爲無明. 乃至廣說故."[또한 말하기를 "의타기성은 공한 것이고 진여도 공한 것이기에 이것이 모든 법의 실상이 된다."라고 했다. 아래 글에서는 "색은 자성이 없어 지각되지 않고, 수·상·행·식도 자성이 없어 지각되지 않으며, 법성 실제까지도 자성이 없어 지각되지 않는다."라고 하였다. 또 이르기를 "모든 법의 실상을 어떻게 있다고 하겠는가? 모든 법은 존재하지 않으니 이와 같이 있는 것을 알지 못함을 무명이라 한다."라고 상세히 설한 연고이다.]

20) 『大乘廣百論釋論』(『大正藏』30, p.229中-下) 참고.

21) 이와 관련하여 붓다의 비실체적·연기적·방편적·의사소통적·무쟁적 언어관에 대해서는 Kalupana, D. J., Buddha's philosophy of language(Colombo: Vishva Lekha, 1999), pp.118-121 참고.

www.kci.go.kr

하면 그렇지 않은 것도 그러한 것과 다르지 않다는 불일불이 논법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원효는 공·유에 대한 이견을 다음과 같이 화쟁한다.

>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 모두 인정되지만, 또한 그러한 것도 아니기에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 이 그렇지 않음은 그러함과 다르지 않으니 비유컨대 그 유가 공과 다르지 않다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비록 두 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또한 본래 주장을 잃지 않는다. 그러므로 사구를 모두 세워도 모든 과실에서 벗어난다.[22]

이처럼 원효는 공과 유라는 말 그 자체에만 얽매이면 대립적 주장(4구)이나 사구가 모두 부정되지만 이제 등의 범주에 의한 다른 관점에서 보면 모두 인정(3구)된다는 화쟁론을 전개한다. 개별과 총체, 속제와 진제, 변계소집성과 의타기성, 의타기성과 원성실성 등 관점과 범주의 내용이 달라질 뿐이다. 이렇듯 상이한 관점에서 보면 유는 유, 무는 무라는 규정은 거짓된 개념의 운동으로 개념 안의 차이일 뿐이다. 생성하고 운동하는 연기적 관계를 드러낼 수 없기 때문이다.[23] 즉, 'A가 있으므로 B가 있고 B가 있으므로 A가 있다'라는 연기적 관계에 따라 각 특성을 모두 인정할 때 동일성에 기초한 개념 안의 차이를 벗어나 진정한 화쟁을 이룰 수 있음이 함축된 논지 전개 방식이다.

부정이 개입하면 유무가 대립하게 된다. 여기서는 '비불연(非不然)'과 '역불연(亦非然)'을 각각 '구허(俱許)'와 '구불허(具不許)'에 대비시키고 있다. 이로써 상대적 관점에 따라 유무가 전환 가능함을 드러낸다. 이러한 맥락에서 A와 B

---

22)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8上), "由非不然故 得俱許而亦非然故俱不許. 此之非然不異於然. 喩如其有不異於空. 是故雖俱不許而亦不失本宗. 是故四句並立而離諸過失也."; 김태수,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p.237 참조; 여기서 '본래의 주장'이란 '주장명제(paksa)'를 뜻하는 말로 '『十門和諍論』에서 주장하는 바'를 뜻한다.

23) 개념 안의 차이란 A와 B를 동일성 관계를 기초로 한 차이나 모순 관계로 보는 방식을 말한다. 이는 차이 그 자체는 개념에서 벗어나기에 부정적인 것을 통해서는 차이를 볼 수 없다는 시각과도 상통한다. 즉 유한 개념이 부정을 통해 무한 속으로 흡수·분리되는 헤겔변증법의 방식과 달리 연기적 관계는 매개나 규정성 없는 운동을 통해 무한의 역량을 유한 속에 구현한다는 점에서 개념을 넘어선 생성태로서의 차이 그 자체에 가까운 비한정적·역동적·상호 연계적 개념이다.

www.kci.go.kr

간에 '불허(不許)'가 성립되더라도 '비연(非然)'은 '연(然)'과 다르지 않기에 '구허(俱許)'의 부정으로 볼 수 없다고 말한다. 이로써 '然'·'非然'·'然非然'·'非然非不然' 모두 긍정되는 원효 특유의 화쟁방식을 보여준다. 이에 대해 반론자는 '유가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과실이 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반박한다.

> 만약 실제로 유라면 곧 무와 다를 것이다. 비유컨대 소뿔이 토끼 뿔과 같지 않음과 같다. 만약 공과 다르지 않다면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비유컨대 토끼 뿔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다. 이제 이 유(有)는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하니 세상에 그와 같은 일은 없다.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는가? 설사 유사한 실례를 들어서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하여도, 앞의 비량에 근거하면 부정과를 이루게 된다.[24]

이상과 같이 반론자는 '실제 유라면 무와 다를 것'인데, '유가 공과 다르지 않다'는 입론자의 주장은 설사 동류의 예를 들어 주장해도 부정과[25]를 이룬다고 반박한다. 즉, '만약 실제로 유라면 곧 무와 다를 것(p1)'이고, '만약 공과 다르지 않다면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 것(p2)'이라는 주장은 각기 '소뿔이 토끼 뿔과 같지 않음과 같이(d1)'와 '토끼 뿔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하는 것과 같이(d2)'라는 실례에서처럼 모순에 떨어진다는 비량이다. 따라서 '만약 (앞에서 논의한 바대로 입론자가) 실제 유(有)는 공과 다르지 않다(實是有者 是不異空之有)'라고 한다면 '설사 유사한 실례를 들어도 부정과를 이루게 된다'라는 공박이다. 즉, 반론자는 앞의 비량에 의거할 때, '(입론자가) 소뿔이 공과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유가 될 수 없다(p)', '소뿔이 존재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h),' '마치 토끼 뿔이 공과 다르지 않은 것과 같이(d)'라는 주장을 전개하는 것으로 보인다.

---

24)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8上), "若實是有 則異於無. 喩如牛角 不同兎角. 若不異空 定非是有. 喩如兎角 無異於空. 今說是有而不異空 世間無類. 如何得成. 設有同喩 立不異空 由前比量 成不定過."; 김태수,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p.156 참조.

25) 『大乘廣百論釋論』(『大正藏』33, pp.195中-下, 200下-201中, 214中, 『大乘掌珍論』(『大正藏』30, pp.269下-270上), 『因明入正理論』(『大正藏』32, pp.11上-13中), 『佛地經論』(『大正藏』26, pp.304中-305上), 『阿毘達磨順正理論』(『大正藏』29, pp.337中-338下, 403上-404中, 418中)등을 참조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www.kci.go.kr

여기서 반론자의 논법은 공이면 공이지, 공이 유가 된다는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소뿔이 토끼 뿔과 같지 않음과 같이, 실제로 유는 공과 다른데 다르지 않다고 한다면 설사 유사한 실례를 들어 '공과 다르지 않다'라고 주장해도 인(因)의 삼상(三相, liṅgasya trairūpyam)을 갖추지 못해 부정의 과실(不定過, anaikāntika doṣa)에 떨어진다는 비판이다. 인명에서 부정과란 능증(能證, sādhana)과 소증(sadhya, 所證)의 관계가 불확정적이어서 이유에 해당하는 인의 삼상 중 동품정유성(同品定有性)이나 이품변무성(異品遍無性) 등에 어긋나기에 주장이 입증될 수 없는 과실을 말한다.

앞 내용이 산실된 관계로 현존 내용만으로 원효의 비량이 부정과에 이르는지 검토할 수는 없다. 다만 반론의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해 반론 내용을 인의 삼상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이 구성해 볼 수 있다.

주장(p): 실제로 유라면 곧 무와 다를 것이다.
이유(h): 공과 다르지 않다면 반드시 존재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실례(d): 토끼 뿔이 공과 다르지 않은 것과 같이.

이에 대한 인의 삼상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다.

(1) 변시종법성: 실제로 유라면 무와 다른 것은 공(무)과 다르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가? → 그렇다.
(2) 동품정유성: 토끼 뿔이 공과 다르지 않은 것 중에 공과 다르지 않다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 토끼 뿔
(3) 이품변무성: 토끼 뿔이 공과 다른 것 중에 공과 다르지 않다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있다. 토끼 뿔

원효가 볼 때, 반론자는 토끼 뿔이 없다고 생각하고 반론을 전개한다. 하지만 이러한 반론자의 논리를 따를 때 토끼 뿔이 공과 달리 있는 것을 상정하는 이품의 경우에도 토끼 뿔이 공과 다르지 않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다는 귀

www.kci.go.kr

결에 떨어지게 된다. (3)의 이품변무성에 대한 검토에서 '토끼 뿔이 있는 것 중에, 없다면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에 대한 답으로 '있다. 토끼 뿔'이 도출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반론자의 인의 삼상은 동품유, 이품유의 공부정인(sādhārana-anaikāntika)으로 된다. 인(因)이 동품 뿐만 아니라 이품에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반론자의 실례를 '소뿔이 토끼 뿔과 같지 않음과 같이'로 볼 경우에도 (1) 변시종법성과 (2) 동품정유성은 성립하지만 (3) 이품변무성은 성립하지 않는다. 설사 반론자가 '소뿔이 토끼 뿔과 같은 것 중에 공과 다르지 않은 경우를 이품으로 검토한 것으로 본다 해도, 공과 다르지 않다면 토끼 뿔과 소뿔 양자의 비존재가 존재하게 되기 때문이다.

> (2) 동품정유성: 소뿔이 토끼 뿔과 같지 않은 것 중에 공과 다르지 않다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 소뿔, 토끼 뿔
> (3) 이품변무성: 소뿔이 토끼 뿔과 같은 것 중에 공과 다르지 않다면 반드시 존재하지 않는 것이 있는가?' → 있다. 소뿔=토끼 뿔

이와 같이 반론자의 반론은 타당한 논증이 되지 못한다. 이품의 실례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럼 이제 이러한 반론에 대한 원효의 재반론을 검토함으로써 화쟁론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III. 원효 화쟁론의 의미론적 검토

이상의 반론 내용에 대해 원효는 다음과 같이 재반론한다.

> 답한다. 그대가 비록 교묘한 방편으로 여러 비판을 하지만, 다만 말을 비판하는 것이지 말의 뜻을 뒤집지는 못하며, 끌어온 바의 비유도 모두 성립하지 못한다. 왜 그런가? 소뿔은 유가 아니고 토끼뿔은 무가 아니기 때

www.kci.go.kr

문이다.[26)]

이처럼 원효는 반론자의 논리가 말의 상대적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며 실례(d) 역시 모두 성립하지 않음을 지적하고 있다. 그 근거로는 '소의 뿔은 있는 것이 아니고, 토끼 뿔은 없는 것이 아니기 때문임'을 들고 있다. 즉, 삼성 등의 관점과 전제를 부가할 경우, 토끼 뿔의 존재는 변계소집성 측면에서 부정되지 않을 수 있고, 소뿔의 존재는 원성실성 측면에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공의 입장에서 보면 실제 유가 공과 다르지 않기에(實是有者 是不異空) 소뿔도 없는 것이고, 개념적으로 존재한다는 관점에서 보면 토끼뿔 개념도 없지 않게 된다. 이 역시 "그렇지 않은 것이 아니기에(非不然故) 모두 인정되지만(得俱許), 그러한 것도 아니기에(亦非然故) 모두 인정되지 않고(俱不許)", "그렇지 않음이 그러함과 다르지 않으니(得俱許而亦非然故), 이를테면 유가 공과 다르지 않음과 같다(喩如其有不異於空)"라는 화쟁의 정형구에 상응한다. 이처럼 원효의 회통 방식은 부정(2, 4구)과 긍정(1, 3구)의 교차를 통해 긍정적 상즉을 유도하는 독특성을 보인다. 이를 위해 이제나 삼성 등의 관점이나 전제를 부가함으로써 두 가지 모두 인정되지 않는다(俱不許) 하더라도 또한 본래 주장을 잃지 않음(亦不失)을 도출하고 있다.

한편 의미론적으로는 원효가 삼성설의 범주를 활용하여 반론자로 하여금 말 그 자체에 머무는 자연적 태도가 아니라 그 이면의 말을 떠난 진실인 원성실 실상을 보도록 유도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숨은 의도를 나타내기 위해 유와 무가 아닌 '비유(非有)'와 '불무(不無)'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즉, 대립 관계에 있는 두 말, 예컨대 소뿔의 '있음'과 '없음'을 서로 반대되는 개념으로 보는 한, 이 개념을 넘어 말을 떠난 법(離言法)에 들어갈 수 없다. 반대 개념을 공존하게 만드는 것, 원융하게 보는 리언의 진실인 의타기적 차이를 그

26)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8中), "答 汝雖巧便 設諸妨難 直難言說 不反意旨 所引譬喩 皆不得成. 何以故. 牛角非有 兎角不無故."; 김태수,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p.157 참조.

www.kci.go.kr

자체로 보기 위해서는 부정에 그쳐서는 안된다. 삼성의 입장에서 볼 때 토끼 뿔은 없지 않고 소의 뿔은 있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27] 차이 그 자체가 연기적 생성이므로 언설을 떠난 의타기 실상의 관점에서 볼 때, 유는 유가 아니고(非有), 무는 무가 아니다(不無). 따라서 이상의 원효 논법에서 사용된 비유비무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실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공성에 기반해 상의 상관적으로 연계되는 의타기 실상을 리언의 진실로 기술하려는 것임을 알 수 있다.[28] 이어지는 내용 또한 이러한 취지에서 원효가 반론자를 힐책하는 부분으로 보인다.

> 그대가 취한 바는 단지 이름과 언설일 뿐이다. 그러므로 나는 언설에 의지하여 언어가 끊어진 법을 보이고자 한다. 마치 손가락에 의지하여 손가락을 떠난 달을 가리키는 것과 같다. 그대는 지금 말대로만 뜻을 취하여 말로 할 수 있는 비유를 끌어와 언설을 여읜 법을 비판하는데, 단지 손가락 끝만을 보고 그것이 달이라고 비난하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비난과 비판이 더욱 정밀해질수록 이치에서 더욱 멀어진다.[29]

이상과 같이 원효는 반론자가 든 비유를 말 그대로만 취하면 말을 떠난 법에 다가갈 수 없음을 힐책한다. 개념 분별에 의거, 비판이 더욱 정치해질수록 진

---

27) "소뿔은 유가 아니고, 토끼 뿔은 무가 아니다"라는 원효의 설명은 매우 독창적이다. 이와 관련된 예로써 원효가 많이 참조한 진제(Paramārtha, 499-569)의 『三無性論』의 경우, "불가언설적으로 있는 것은 예컨대 [색·성·향·미·촉의] 다섯 가지 인식대상이고, 불가언설적으로 없는 것은 예컨대 토끼 뿔이다. 실제로 있는 것도 아니고 없는 것도 아니기에 無性性(niḥsvabhāvatā)이라고 일컫는다."라는 형태로 토끼 뿔을 불가언설적으로 없는 것의 예로 들고 있다. 『三無性論』(『大正藏』31, p.867下), "不可說有如五塵 不可說無如免角. 即是非有性非無性故名無性性."; 『轉識論』에서는 삼무성인 무성성을 일체법 진실로 정의한다. 『轉識論』(『大正藏』31), p.62中 참조.

28) 산실된 후반부 화쟁 내용을 고려해 볼 때, 원효의 입론이나 비량은 논쟁에서의 승리를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경전 내 주장 간의 모순을 회통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화쟁을 목적으로 한 논의이기에 엄밀한 논증식의 요건을 갖추기보다 부정인(不定因, anaikāntika-hetu)이라는 반론을 감수하더라도, 적용이 광범위해서 불명료한 포섭적 증인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한편 『無量壽經宗要』에서와 같이 비유나 힐난 등을 활용하여 상대를 회유하는 형태도 화쟁을 목적으로 한 논법 구사의 일종으로 보인다.

29)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8中), "如汝所取 但是名言 故我寄言說 以示絶言之法 如寄手指 以示離指之月 汝今直尒如言取義 引可言喩 難離言法 但看指端 責其非月. 故責難彌精 失理彌遠矣."

www.kci.go.kr

리를 놓치는 것이 더욱 많아지기 때문이다. 이러한 비판에는 언어 자체와 언어 작용 가운데 작용(효용)을 강조하는 대승적 언어관이 전제되어 있다. 즉, 언어는 언어 자체와 언어 작용으로 나뉘는데, 색과 허공이라는 언어에 대한 집착을 버릴 때 언어 작용이 드러날 수 있다는 논지이다. 이 역시 사구 가운데 제4구인 불가언설(不可言說, Nirabhilāpya)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이어서 원효는 허공의 비유를 들어 원성실성 측면을 시사한다. 즉, '허공은 모든 장, 단 등의 색과 굴신 등의 업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아서 모든 색과 색의 작용을 제거할 때 색이 없는 허공이 같은 크기만큼 드러나는 것'이라는 비유를 들고 있다. 이때 '중생은 행위하고 색은 작용(karma)하므로 색을 제거할 경우, 색의 작용이 물질이 없는 허공과 유사하게 현현하는 것'으로 기술된다. 나아가 '물질이 있던 자리가 없어지게 되면 빈 곳만큼 색의 작용이 드러나게 된다'는 설명이 부가된다. 여기서 '리언'은 허공을, '언설'은 '제하고 남은 부분에 드러난 언설의 의미'에 상응한다. 이어서 원효는 반론자의 생각이 변계소집에 해당함을 다음과 같이 기술한다.

> 마땅히 알아야 한다. 이렇게 드러난 허공은 긴 모습을 띠기도 하고 짧은 모습을 띠는 것처럼, 언어를 떠난 사태도 이러한 허공의 사태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응하는 바에 따라 앞에서와같이 장단 등의 색을 포괄하고 있다. 그렇지만 허공이 포용하는 색이 허공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범부가 잘못 생각해서 잘못 파악한 것이다.[30]

여기서는 '범부와 색', '허공과 리언'이 동치되고 있다. 즉, 굴신 등의 표색과 마음의 의지가 몸으로 나타난 행위인 표업이 허공이 응하는 바에 따라 장단을 띠듯이, 언어를 떠난 사태도 이와 마찬가지로 그것이 응하는 바에 따라 장단 등의 색을 포괄한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공이 포용하는 색은 허공과 다르지 않다는 결론을 도출한다. 이때 허공이 표현하는 색은 의타기로 나타

30) 앞의 책, "當知卽此顯現之空 似長似短 離言之事如是空事 隨其所應 前時容受長短等色. 然所容受色 異於虛空 凡夫邪想分別所取."

www.kci.go.kr

나고 허공은 원성실을 비유한 것이므로 의타기와 원성실 또한 불일불이의 관계로 된다. 즉, 허공이 식변(識變)에 의해 의타기로 나타난 것이기에 색과 허공, 유와 공은 다르지 않다는 회통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공은 "불변이(avikāra)를 원만하게 성취했기에 그것이 원성실성이다. … 의타기가 변계소집 자성을 늘 결여하는 것이 원성실성이다. 또 결여는 법성이다. … 또한 원성실이 의타기의 법성인 까닭에 원성실이 의타기와 다르지도 않고 다르지 않지도 않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31]라는 『유식삼십송』(TRBh 22d)의 불일불이론과도 연계해서 생각해 볼 수 있다. 『유식삼십송』에서는 이 관계를 "이것이 보이지 않을 때, 그것은 보이지 않는다."[32]라고 표현한다. 안혜(安慧, Sthiramati, 510-570)는 의타기와 원성실 간의 상의 상관성을 기술하는 이 게송에 대한 주석에서 "원성실은 허공과 같이 일미이다."[33]라고 풀이한다. 즉, 원성실성을 의타기성과 불이불이 관계로서 '소취·능취의 무'뿐만 아니라 허망분별인 의타기의 유를 넘어 '의타기 법성으로서의 불변이를 성취한 일미로서의 진여'[34]에 대응시키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허공과 같이 일미인 원성실성을 전제로 하는 원효는 "허공이 수용하는 색이 허공과 다르다고 하는 것은 범부가 변계소집에 의해 잘못 파악한 것임을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그러므로 '두루 계탁해서 집착한 모든 것들'에 비유할 수 있다. 비록 존재하지 않지만, 공과 달리 존재한다고 하기 때문이다. 수용하는 사태가 허공과 다르지 않으니 모든 범부의 분별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겨난 것들[依他起相諸法]에 비유할 수 있다.

---

31) TRBh, 22d, p.124, "avikāraparinispattyā sa parinispannaḥ … parikalpitena svabhāvena paratan- trasya sadā rahitatā parinispannaḥ/ rahitatā ca dharmatā … parinispannaś ca paratan tradharmatety ataḥ paratantrāt parinispanno nānyo nānanya iti boddhavyaḥ."; 김태수,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p.96.

32) Ibid., p.124, "nādṛṣṭe 'smin sa dṛśyate."

33) Ibid., p.124, "parinispannaś cākāśavad ekarasaḥ."

34) Ibid., p.124; 김태수,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p.96 참조.

www.kci.go.kr

> 비록 실제로 존재하지만, 공과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또 저 변계소집자성은 의지할 바 없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의타기상이 의지하는 바가 되어 변계소집이 비로소 임시로 성립하게 된다. 비유컨대 허공의 언설을 여읜 것이 그 응하는 바에 따라 모든 색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다.[35]

이 설명은 있는 바가 없는 데도 허공과 다르다고 계탁하기 때문에 변계소집제법에 비견된다[36]는 기술이다. 또 (허공에) 수용한다는 사태[37]가 허공과 다르지 않으니, 모든 범부의 분별로써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부가된다. 즉, 저 변계소집자성은 소의가 없이 독립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의타기상이 의지하는 바가 되기에 변계소집이 비로소 임시적으로 성립하게 된다는 논지이다. 실례로서는 '허공의 언설을 여읜 것이 그 응하는 바에 따라 모든 색을 받아들이는 것과 같이(d)'가 제시된다. 이는 변계소집된 유를 완전히 떠나야 원성실인데 유라고 말하는 순간 집착하게 되고, 말하지 않으면 표현할 수 없는 딜레마를 허공의 비유를 통해 불일불이로 모순 없이 해결하는 방식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언설을 떠난 의타기에서 있는 것으로 현현하는 유 자체가 공, 곧 허공과 같은 원성실과 다르지 않음을 도출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원효는 허공의 언설을 여읜 것[虛空離言之事]이란 원성실을 가리키지만, (허공에) 수용한다는 사태(작용)로 기술된 의타기상과 불일불이로 연계되어 있음을 밝히고 있다. 즉, (허공에) 받아들인다는 사태가 허공과 다르지 않으니 허공으로 비유되는 원성실과 '다른 것에 의지하여 생겨난 의타

---

35)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8中), "故喩遍計所執諸法. 雖無所有而計異空故. 能容受事不異虛空 非諸凡夫分別所了. 故喩依他起相諸法. 雖實是有而不異空故. 又彼遍計所執自性 非無所依獨自成立 依他起相爲所依止 遍計所執方得施設. 喩如虛空離言之事 隨其所應 容受諸色."; 김태수,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p.157 참조.

36) '喩'는 비유해서 설명하는 것인데, '喩'라는 단어는 "깨우쳐 주다"라는 중의적 함의가 있으므로, "범부가 알 수 없으니까 깨우쳐 준 것이다."라는 숨은 의미도 생각해 볼 수 있다. 허공이 없다고 생각하면 허무론에 빠지므로 "비유로서 깨우친다"라는 뉘앙스를 포함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37) '能容受事'의 주체는 허공이므로 '허공이 수용한다는 사태(작용)가 허공과 다르지 않다'라는 말이 되기에 '能容受事'대신 '所受容色'을 사용해도 좋을 것으로 보인다.

www.kci.go.kr

기상이 다르지 않다는 회통이다. 원성실의 의타기성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성(性)이 곧 상(相)이므로 원성실성과 의타기상은 매개 없이 불일불이 관계를 형성한다는 연기적 사유이기도 하다.[38] 원효는 이러한 유식의 삼성관에 의거해 유와 공의 불일불이적 회통을 유도한다.

이렇듯 원효는 삼성설의 맥락에서 "만약 망상분별을 여의고 변계소집상을 제거할 때 그 제거한 곳을 따라 색을 여읜 공이 드러나는 것과 같다는 비량도리에 의거하여 제법이 모두 허공과 같음을 알아야 한다."[39]라는 기술로 변계소집과 의타기 및 원성실 간의 연계 구도를 설명한다. 나아가 "모든 성인은 행하는 법이나 행하지 않는 법 속에서 모두 지혜 행이므로 다르지 않으며, … 오온은 유가 아니고 인연을 좇아 생겨난 것이 아니기에 있지 않은 것도 아니니, 오온과 성인의 경계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가 미칠 수 있는 것이 아니다."[40]라는 『金鼓經』 구절에 의거, 불가언설을 시사한다. 이를 위해 『大慧度經』[41], 『中論』[42], 『瑜伽師地論』[43] 등을 인용[44]하여 열반과 세간의 끝(koṭi)을 허공에 비유함으로써 양자의 불이 및 '있는 바 없음(無所有)'과 구별되는 '무자성'의 의미를 강조한다. 즉, 원성실 불가언설을 시사하는 허공을 활용하여 일체법이 모

38) 삼성설과 관련하여, 『攝大乘論』과 함께 원효가 중시한 『中邊分別論』 주석(MAVT 10.1.2)의 <선교진실>에서도 "색 등을 자성으로 가설하기에 변계소집이며, 가설의 근거가 되기에 의타기이고 바로 그것이 다른 조건에 의존하는 까닭이며, 색 등의 상태를 궁극적으로 여읜 상태"인 원성실성은 "분별된 색과 변계된 색을 여읜 것을 본질로 하는 공성"이라고 풀이된다. TRBh, pp.139-140; 이렇듯 원효는 유식무경의 관점에서 삼성이 모두 연계되어 있고, 공성과 원성실성도 다르지 않음을 시사한다.

39)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8下), "菩薩若離妄想分別 除遣遍計所執相時 便得現照離言之法. 亦時諸法離言相顯. 喩如除遣諸色相時 隨其除處 離色空顯. 由如是等比量道理 應知諸法皆等虛空."; 김태수,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p.157 참조.

40) 『合部金光明經』(『大正藏』4, 「讚歎品」, p.380中); 김태수, 앞의 논문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p.157 참조.

41) 여기서 원효가 말하는 『大慧度經』 내용은 鳩摩羅什譯 『摩訶般若波羅蜜經』(『大正藏』8, p.349中): 『大智度論』 (『大正藏』25, 「釋燈喩品」, p.590下) 참조.

42) 『中論』(『大正藏』30, p.36上), "涅槃之實際及與世間際 如是二際者 無毫釐差別."[열반의 끝과 세간의 끝, 이와 같은 두 가지 끝은 털끝만큼도 다름이 없다.]; MMK, 25-20, pp.300-302 참조.

43) 『瑜伽師地論』(『大正藏』30, p.540下); 『解深密經』에서도 『반야경』의 일체법 무자성의 설법을 동일하게 설하지만 『반야경』의 현료의로서의 설명과 달리, 삼성설을 활용해 미료의로 풀이한다. 『解深密經』(『大正藏』16), p.693下) 참조.

44)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8下) 참고.

www.kci.go.kr

두 있지 않은 것이 아니고 다만 무자성 공에 의거한 것이라는 비본체적 설명을 통해 공성과 유성의 의미를 회통 시킨다. 이는 제법의 언설로 표현되는 사태의 자성인 변계소집 자성이 허망유(妄有)로 존재하되 무나 공과 다르지 않고, 유와 공, 생사와 허공이 이치에 따라 회통 되고 진실로서 화회되며 언설로 표현되는 자성이 전혀 없기에 모든 중생을 섭수할 수 있다는 의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언설 및 자성 문제와 관련하여, 원효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 비록 말할 수 있는 모든 말을 하더라도 그들[45]에 의지하기에 모든 언설이 발생한다. 하지만 그들에 의해 "자성이라고 할 수 있다"라고 설해진 바는 제일의에 의거하면 그 자성이 아니다. 비유하면 마치 허공 중에 수많은 물질과 물질이 지닌 작용이 있게 되면 허공이 모든 물질이 가진 작용을 포함하는 것처럼, 다시 말하면 허공 중에 간다든지, 온다든지 구부린다든지 편다든지 하는 사태들이 나타나게 된다. 만약 그때 색과 그 작용을 모두 제거하면 색이 없는 것을 본질로 하는 청정한 허공이 (이와) 유사하게 나타난다.[46]

이상과 같이, 원효는 이제와 삼성을 활용하여 색상과 청정한 허공을 대비시킨다. 삼성의 측면에서 변계소집 자성은 진제인 제일의로 보면 자성이 아니므로 무이다. 따라서 유라고 해도 망유(妄有)로 볼 수 있다. 분별에 의한 그릇된 상으로서 실재하지 않는 것이다. 여기서 '구부린다든지 편다든지'하는 사태들은 언설에 대응한다. 한편, '제거한 만큼 허공과 유사하게 그대로 나타난다'란 마음에 나타나고 마음이 구성한 대상으로서의 의타기 법에서 마음 밖의 대상으로 보는 변계소집을 제거했을 때 성과 상이 그대로 상즉한다는 진실을 나타낸다. 이 또한 의타기에서 변계된 것을 제거한 것이 원성실이라는 고전적 유식

---

45) 앞에서 '彼'가 중생으로 되어있으므로 여기서도 '중생들'로 볼 수 있다.

46)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9上), "雖有一切所言說事 依止彼故 諸言說轉. 然彼所說可說自性 據第一義非其自性. 譬如('知'를 문맥에 따라 '如'로 바꿈)空中有衆多色色業 可得容受一切諸色色業 謂虛空中現有種種 若往若來屈申等事. 若於尒時諸色色業皆悉除遣 卽於尒時唯無色性淸淨虛空相似顯現."; 색상을 제거하면 무색성인 청정한 허공 모습이 허공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의미로 보인다.

www.kci.go.kr

의 정의에 상응하는 기술이다.

이 설명에 따르면, 비록 외부의 객관적 실재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나지만 이는 마음과 무관하게 존재하지 않는 의타유이며, 그러한 진실에 의거할 때 진실유이다. 나아가 원효는 마음이 구성해서 나타난 것이라는 의타기에 대한 기술을 청정의타기와 같은 원성실의 의타기성에 대한 설명과 연계시킨다. 이 역시 의타기와 원성실 간의 상의 상관적 관계를 강조함으로써 모든 것이 무자성공이지만 그러한 까닭에 각자의 성으로 의타기를 볼 수 있고, '무소유(無所有)'이기에 '실시유(實是有)'로서 청정한 허공이 나타날 수 있다는 회통논리이다.

한편 원효는 언설과 언설을 떠나 있는 사태를 다음과 같이 대비시킨다.

> 허공의 모습과 같이, 이와 마찬가지로 언설을 떠나 있는 사태에 대해서 여러 언설을 통해 지어진 잘못된 분별이 있게 되어 희론의 집착을 따라 마치 색의 작용과 같이 일어나게 된다.[47]

이상과 같이 원효는 허공에 의거해 언설의 사태가 일어남을 명시한다. 즉, 갖가지 언설로 지어낸 삿된 망상과 분별이란 희론에 따라 집착한 색업과 같은 것들이 발생하는 것으로, 예컨대 언설을 떠난 사태에 대해 변계소집을 일으킨 것을 말한다. 여기서 원효는 범부에게 변계소집처럼 나타나는 사물이나 사태가 사실은 모두 중생의 마음에 나타난 것이기에 의타기의 사태라는 점에서 '변계소집과 유사하게 나타난다'는 현장 등의 유식 용어에 의거, '사현(似現)한 것'으로 표현한다. 즉, 공과 흡사(相似)한 것이 이러한 사태를 수용한다는 의미이다. 이에 따라 갖가지 언설이 만든 그릇된 분별이 희론에 따라 집착한 것으로 색과 유사하게 전전(展轉)하고, 색과 유사한 업이 색업과 유사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풀이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한 사태에 대한 의타기가 변계소집과 유사하게 나타남을 경계하고 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는 '어떻게 공관을 통해

47)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9上), "如是卽於相似虛空離言說事. 有其種種言說所作邪想分別隨戲論着似色業轉."

www.kci.go.kr

언설의 사태를 벗어나 제법을 증득하는가'에 대한 기술을 통해 <공유화쟁문>의 현존 내용이 마무리된다.

> 또 이와 같이 일체언설과 잘못된 분별은 희론의 집착을 떠나 뭇 색업과 같이 (중생의 업으로 현현함이) 모두 공과 같아서 언설의 사태가 받아들이는 바를 떠난다. 만약 보살이 미묘하고 성스러운 지혜로써 일체 언설이 일으킨 삿된 생각과 분별을 제거해 버리고 희론을 따라 집착하는 것을 떠나보낸다면 이때 최고의 탁월한 성자인 보살은 언설의 사태를 벗어난 제법을 증득한다. 다만 일체언설의 자성과 자성 아님이 드러남이 허공과 같아서 청정한 상이 드러나는 것 또한 과실이 아니다. 이 나머지 자성들도 반드시 다시 신중하게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48]

이상과 같이 원효는 그릇된 삶의 분별과 희론에 의지하는 집착을 제거할 때 일체언설 자성의 유무가 드러남을 밝힌다. 나아가 이렇게 '드러남이 허공과 같아서 청정한 상이 드러나는 것 또한 과실이 아님'을 제시하고 있다. 일체언설이 삿되게 망상하고 분별하여 희론을 따라 집착한 온갖 색의 업과 같은 것들은 다 허공과 같아서 언설을 여읜 것에 수용되기 때문이다.[49]

이는 언설에 기반한 제법의 자성[50]이 공함을 알 때, 언설이 야기한 희론 분별 역시 공하므로 이를 제거함으로써 불가언설인 리언진여를 증득할 수 있다는 논법이다. 즉, 언설이 언설을 떠난 경지를 표현하기 위해 생동하는 힘을 갖는다면 작용력을 발휘하는 순간 언설은 사라진다. 이로써 의타기성이 의지하는 바로써 가설적으로만 성립하는 변계소집도 사라져 청정한 원성실성이 드

---

48) 『十門和諍論』(『韓佛全』1, p.839上), "又卽如是一切言說邪想分別 隨戱論着似衆色業 皆是似空 離言說事之所容受. 若時菩薩 以妙聖智 除遣一切言說所起邪想分別 隨戱論着 尒時菩薩最勝聖者 證得諸法離言說事 唯有一切言說自性非性所顯 喩如虛空 淸淨相顯亦非過 此有餘自性應更尋思故."

49) 색이 언어라면, 색업은 언어가 지닌 작용(분별)을 뜻한다. '허공과 같은 언설을 떠난 사태에 대해 수용된다'란 '실제 언설을 떠난 사태가 언설 분별을 포함하는 것처럼 보인다'라는 함의를 전제한다; '언설의 사태'라고 할 때 '사태(vastu, dnogs po)란 경우에 따라 진실, 궁극적 실재나 사물 또는 작용을 의미한다. 한편 '無有事'라는 표현은 부정 대상인 실체로서 'dravya'를 뜻하기도 한다.

50) 이와 관련된 『瑜伽師地論』의 용례들은 『瑜伽師地論』(『大正藏』30, pp.362上-中, 539中-下, 544上-544中; 『瑜伽師地論』(『大正藏』30, 「攝決擇分」, p.743上) 참조.

www.kci.go.kr

러나게 된다. 따라서 이 논의는 언설 자성의 유무란 규정지을 수 없으며, 관점에 따라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한다는 비유비무의 역동적 함의를 제시하는 내용으로 볼 수 있다. 이로써 허공과 같이 청정한 상이 드러나는 것[51]으로 제법을 증득할 수 있음이 시사된다. 이는 언설의 사태를 벗어난 허공과 같은 일미에서 비유비무(부정)의 함의를 역유역무(긍정)로 순환시키는 원효 특유의 화쟁 논법이다.

IV. 결론: 원효 화쟁논법에 나타난 중도관의 함의와 특성

『十門和諍論』<공유화쟁문>에서는 이제와 삼성에 의거해 공유 간의 화쟁을 도출한다. 고전적 유식의 관점을 이어, 의타기에서 변계를 제한 것을 원성실로 보는 입장을 취하면서도 원성실 진여가 공성에 의거해 허공과 같은 일미로 나타남이 강조된다. 이때 의타기가 의지하는 바인 변계소집 자성은 개념적으로만 성립한다. 따라서 허공이 수용하는 사태인 의타기상은 실제로 존재하되 공과 다르지 않고, 허공으로 비유된 원성실성과 다르면서도 다르지 않게 된다. 이로써 실시유는 가유와 상즉하고 공과 다르지 않은 함의를 지님으로써 '실유=공'이라는 회통이 가능해진다.

화쟁논법에 나타난 사상적 특색을 보면, 무자성 제법을 비유비무로 여기는 중관에 비해, '원성실성이 변계소집성을 결여한 의타기성으로서의 진여'[52]를 제일의제로 보는 초기 유식의 입장에 의거, 제거한 이후에도 남아 있는 사태(vastu)를 전제한다. 나아가 이를 의타기와의 불이상즉에 의해 무변이와 무전도를 성취한 원성실 진여이자 일미, 일심으로 제시한다.

논법상의 특색을 보면, 화쟁을 특성으로 하는 원효 논법의 특색은 제4구인

51) 『瑜伽師地論』(『大正藏』30, pp.540下-541中); 『菩薩地持經』(『大正藏』30, p.932下) 참조.

52) Trbh, 21cd, p.124, "niṣpannas tasya pūrveṇa sadā rahitatā tu yā."[원성실성은 그것(의타기성)이 전자(변계소집)를 늘 떠난 상태이다].

www.kci.go.kr

비유비무를 강조하는 외형에도 불구하고 내용상 관점에 따라 제3구인 긍정으로 전환되는 의미의 순환 구도를 보인다. 이제·삼성설과 관련해서도 진제와 속제, 원성실과 의타기가 상호 의존된다. 수행론과 관련해서, 화쟁논법은 중관의 무자성론으로 대표되는 공에 대한 사유뿐만 아니라, 진여의 의미를 '여실하게 앎에 의해 '법(法)'과 '의(義)'의 상(nimitta)을 완전히 제어하는 초지 단계 이상에서 '이것이다'라는 진여에 대한 관념조차 내려놓을 때, 언어 개념을 떠난다'라는 초기 유식 수행관[53]과 상통하는 면이 있다. 한편 불가설적 속성을 메타언어로 기술한 유식의 유에 대한 사유 또한 무자성에 입각하기에 양자가 다르지 않다는 화쟁 구도를 보인다. 수행 맥락에서는 '이것이 진여다'라는 언어적 개념을 사용해 수습할 수밖에 없지만 '이 또한 마음이 만들어 낸 상'이라는 점을 관찰한다면 인식론적으로 중관에서 무자성을 논하는 관점과 크게 다르지 않게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공유화쟁문>에서 원효는 무자성 공에 의거, 진여로서의 원성실 일미를 지향한다. 이 과정에서 상호연기적 교차 관계를 통해 공통의 의미인 화쟁을 유도해 낸다. 가장 특징적 방식은 대립 되는 주장을 각기 진속 이제 구도를 통해 교차적으로 설명한 후, 양자를 관점에 따라 부정 또는 긍정함으로써 중도로서 긍정을 도출하는 형태이다. 또한 유무·진속의 양극단을 초월함으로써 중을 나타내 보인 후, 이를 다시 부정하는 방식도 많이 쓰인다. 이 과정에서 사구를 활용하여 진속·일이(一異)·공가(空假)·성상(性相) 등의 의미를 쌍방향으로 연계·순환시켜 부정을 긍정으로 전환한다.

이렇게 볼 때, 사구로 기술되는 화쟁논법이 '긍정(1구)'·'부정(2구)'·'긍정이면서 부정(3구)'·'긍정도 부정도 아님(4구)'과 같은 형식을 취하더라도 중도 실상을 보이기 위해 방편적 차원에서 건립된 논법이라는 점에서 상대적·인식론적 특성을 나타낸다. 화쟁 도출과정에서도 부정이 곧 긍정이 되고, 제4구의 부정과 제3구의 긍정이 불일불이로 교차되는 상대적 관계 논리가 활용된다.

53) 안성두 역주, 『보살지(菩薩地)』, 서울: 세창, 2015, pp.92-93, pp.290-291 참조

www.kci.go.kr

이러한 불일불이 논법의 지향점은 상대의 오류를 드러내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불설이라는 공통 근원에 입각한 복합적 관점 제시를 통해 모순·대립을 무화시키는 화쟁에 있다. <공유화쟁문>에서 활용된 화쟁논법 또한 사구로 기술된 공·유에 관한 모든 주장을 허공과 같은 일미 중도에 의거, 관점의 차이에 따라 공통의 의미로 회통·순환시키는 열린 논리체계의 특성을 보인다.

www.kci.go.kr

참고문헌

1. 약호 및 원전자료

- MAVT Sthiramati, Madhyāntavibhbhāgaṭikā, édition par M. Sylvain Lévi, par Susumu Yamaguchi, Nagoya: Keimeikwai, 1934.
- MMK *Nāgārjuna's Middle way: Mūlamadhyamakakārikā*, ed. Mark Siderits, and Shōryū Katsura, Boston: Wisdom Publications, 2013.
- TRBh *Sthiramati's Triṃśikā-vijñaptibhāṣya: Critical Editions of the Sanskrit Text and its Tibetan Translation*, ed. Hermut Buescher, Wien: Verlag der Osterreich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2007.
- 『大正藏』:『大正新修大藏經』
- 『韓佛全』:『韓國佛教全書』
- 『教分記圓通鈔』(『韓佛全』4)
- 『金剛三昧經論』(『韓佛全』1)
- 『大般涅槃經』(『大正藏』12)
- 『大乘廣百論釋論』(『大正藏』33)
- 『大乘掌珍論』(『大正藏』30)
- 『大慧度經宗要』(『韓佛全』1)
- 『摩訶般若波羅蜜經』(『大正藏』8)
- 『菩薩地持經』(『大正藏』30)
- 『菩薩瓔珞本業經』(『大正藏』24)
- 『本業經疏』(『韓佛全』1)
- 『佛地經論』(『大正藏』26)
- 『三無性論』(『大正藏』31)
- 『成唯識論』(『大正藏』31)
- 『十門和諍論』(『韓佛全』1)
- 『阿毘達磨順正理論』(『大正藏』29)
- 『涅槃宗要』(『韓佛全』1)

www.kci.go.kr

• 『瑜伽師地論』(『大正藏』30)
• 『因明入正理論』(『大正藏』32)
• 『雜阿含經』(『大正藏』2)
• 『轉識論』(『大正藏』31)
• 『中論』(『大正藏』30)
• 『合部金光明經』(『大正藏』14)
• 『解深密經』(『大正藏』16)

2. 2차자료

<단행본류>

• 고영섭 편저, 『한국의 사상가 10人: 원효』, 서울: 예문서원, 2002.
• 金星喆 譯註, 『中論』, 서울: 經書院, 1993.
• 박태원, 『원효의 십문화쟁론』, 서울: 세창출판사, 2013.
• 안성두 역주, 『보살지(菩薩地)』, 서울: 세창, 2015, pp.92-93, pp.290-291 참조
• D. J. Kaluphana, *Buddha's philosophy of language*, Colombo: Vishva Lekha, 1999.

<논문류>

• 고영섭, 「분황(芬皇) 원효(元曉)의 화쟁(和諍) 회통(會通) 인식: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을 중심으로」, 『불교학보』81, 서울: 동국대학교 불교문화연구원, 2017, pp.60-87.
• 김성철, 「원효의 논리사상」, 『보조사상』26, 서울: 보조사상연구원, 2006, pp.284-313.
• 김영일, 「元曉의 和諍論法硏究: 和諍의 實例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08, pp.1-269.
• 김태수, 「四句解釋에 관한 元曉 和諍論法의 특성: 들뢰즈의 새로운 변증법과의 대비를 중심으로」, 『불교학리뷰』22, 논산: 금강대학교 불교문화연구소, 2017, pp.221-256.
• _____, 「제법실상(諸法實相)에 대한 원효의 화쟁방식」, 『동아시아불교문화』35, 부산: 동아시아불교문화학회, 2018, pp.275-300.
• _____, 「원효의 화쟁논법 연구: 사구(四句) 논리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2018.
• _____, 「『十門和諍論』에 나타난 '불성 유·무(佛性有無)'에 대한 논의 연구」, 『哲學論

www.kci.go.kr

叢』49, 대구: 새한철학회, 2018, pp.439-462
• 박태원, 「『십문화쟁론(十門和諍論)』 '공(空)/유(有) 화쟁'의 해석학적 번역과 논지 분석」, 『불교학연구』34, 서울: 불교학연구회, 2013, pp.147-193.
• _____, 「화쟁사상을 둘러싼 쟁점 검토」, 『韓國佛敎史硏究』 2, 서울:한국불교사연구소, pp.125-170
• 안성두, 「유식문헌에서의 삼성설(三性說)의 유형과 그 해석」, 『印度哲學』19, 서울:인도철학회, 2005, pp.61-90.
• 최연식, 「원효의 화쟁사상의 논의방식과 사상사적 의미」, 『普照思想』25, 서울:보조사상연구원, 2006, pp.405-461.
• 최유진, 「元曉의 和諍思想 硏究」,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대학원, 1988.
• Yuichi, Kajiyama, "Three kinds of affirmation and two kinds of negation in Buddhist logic," WZKSOA 19, 1973.

www.kci.go.kr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gic of Hwajaeng Shown in "The Gate of Hwajaeng between Emptiness and Existence" of *Ten Approaches to Hwajaeng*: Focusing on the View of 'Neither Existence nor Non-Existence' as the Middle with Reference to the Twofold Truth, Three Natures and Inexpressible Nature

Kim, Taesoo
Visiting Researcher
Institute of Philosoph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is study aims at reveal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logic of hwajaeng (harmonizing the disputes) shown in "The Gate of Hwajaeng between Emptiness and Existence" in Wonhyo (617-686)'s *Ten Approaches to Hwajaeng*, while focusing on his view of the middle expressed as the logic of 'neither existence and non-existence' with reference to the twofold truth, three natures and examination of inexpressible nature (*nirabhilāpya*).

Accordingly, Wonhyo shows that the contradictory positions are all embraced without falling into any ontological contradiction by interconnecting the discourse of the twofold truth and three natures based on the principle of emptiness and dependent origination. Here, every discourse is regarded as a mere designation (*prajñapti*) or a conceptual elaboration (*prapañca*) without substance.

Further, the discourse of hwajaeng can be viewed as the way to show the consistency among the contradictory arguments from the perspective of one flavor as an expression of ultimate reality of inexpressibleness. One flavor as the ground of hwajaeng, as well as the inexpressibleness, reveals the true reality of the middle

www.kci.go.kr

based on the equation of emptiness = dependent origination = ultimate truth. It is described as a void-like ground deducing a common meaning interconnected with the twofold truth and three natures. As such, the ‘neither identical nor different’ scheme is emphasized between the interdependent nature as secular truth and the perfect nature as ultimate truth.

Likewise, all disputes are harmonized into one flavor of the middle in the dynamic interconnection between the ultimate and secular. Further, it shows pragmatic nature not even sticking to the middle, let alone to each phrase of ‘existence,’ ‘non-existence,’ ‘both’ or ‘neither.’ Hence, the discourse of ‘neither existence nor non-existence’ as the middle in “The Gate of Hwajaeng between Emptiness and Existence” is revealed as the idea of mutual relation, breaking down all sorts of attachments represented by language and thought.

Keywords

Ten Approaches to Hwajaeng, Harmonizing the disputes. “The Gate of Hwajaeng between Emptiness and Existence,” Logic of Hwajaeng, 'Neither Existence nor Non-existence,’ the View of the Middle, Twofold Truth, Three Natures, One Flavor, Emptiness

2019년 11월 14일 투고
2019년 12월 23일 심사완료
2020년 03월 16일 게재확정

www.kci.go.kr

www.kci.go.kr